

LG U+ “2030년까지 AIDC 수주 5조 목표”

차세대 AIDC 인프라 전략 발표
구축속도, 전력·규모, 냉각 제시
파주 AIDC, 200MW 전력공급 확정
‘AI팩토리 오퍼레이터’ 도약 포부

LG유플러스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매출을 매년 20% 확대하고, 누적 수주 5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전력 용량, 냉각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7일 차세대 AIDC 인프라 전략 ‘에이스 온 트러스트(The AC E on Trust)’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전력 사용량과 발열량 급증으로 인한 변동성을 극복하고,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간극에 따른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축 속도 ▲전력·규모 ▲냉각 효율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표준 모듈형 데이터센터(PMDC) 공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설비를 표준화해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경기 파주에 위치한 LG유플러스 파주 AIDC 조감도.

/LG유플러스

실증(PoC)부터 하이퍼스케일급 규모까지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파주 AI 데이터센터도 이같은 방식으로 구축 속도를 높였다.

특히 파주 AIDC는 200MW 규모의 전력 공급이 확정된 현재 수도권 내에서 최대 규모의 추론형 AI 데이터센터로 기능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파트너 및 자산운영사와 협력해 설계·구축·운영(DBO) 기반 맞춤형 공급을 병행하며 AI 전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파주 AIDC에서 활용하는 냉각 기술은 고밀도 GPU 환경에 최적화됐다. 국내 최

초 하이퍼스케일급에서 공기냉각과 액체 냉각을 동시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도입했다. NPU, CPU까지 모든 종류의 AI 칩을 냉각할 수 있다.

또 냉각 설비, 전력 설비 등 주요 장비를 LG 그룹 계열사와 협력해 ‘원(One) LG’ 생태계를 구축한다. LG전자와 구축한 액체냉각 설비는 GPU 칩에 전용 금속판을 부착하고 냉각수 분배장치(CDU)를 통해 액체를 순환시켜 열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자체 실증 결과 공기 냉각 보다 약 24%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있었다. 냉각수

를 만드는 공랭식 ‘프리쿨링 칠러’도 LG 전자로부터 공급받는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고성능UPS 배터리는 정전과 전압 변동 시 전력을 즉각 보정한다. 배터리 셀부터 팩까지 자체 설계한 다중 안전 구조가 화재와 열폭주 위험을 최소화한다. LS일렉트릭스와 공동 개발 중인 DC 800V 배전 시스템은 고전력 사용량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략은 데이터센터 무중단 운영역량이 기반이 됐다. 회사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서울 논현동에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열었다.

최종적으로 ‘AI 팩토리 오퍼레이터’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AI 데이터 센터를 서버 임대뿐만 아니라 GPU 자원 관리와 전력, 냉각 요소를 공정처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목표치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파주 AIDC를 핵심으로 2030년까지 누적 사업 수주 5조원을 달성하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 6월 준공을 앞둔 파주 AIDC 1동은 현재 모든 계약이 끝난 상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엔씨 오는 9월 ‘아이온2’ 글로벌 출시 예정

엔씨가 MMORPG 신작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 일정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엔씨는 7일 ‘아이온2’를 오는 9월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게임은 자체 플랫폼 ‘퍼플’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PC 버전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엔씨는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게임 전시회 ‘서머 게임 페스트 2026’에 참가해 ‘아이온2’를 처음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글로벌 게임 전문 미디어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게임 핵심 콘텐츠를 시연하고 작품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아이온2’는 엔씨의 대표 지식재산권 가운데 하나인 아이온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MMORPG다. 엔씨는 이번 글로벌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해외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KT ‘2026 월드컵’ 거리응원 행사

엔비디아 업은 네이버 ‘웃고’, 파업 앞둔 카카오 ‘울고’

네이버, 최근 한 달 주가 20% 올라
엔비디아 협력 속 AI 경쟁력 기대감
카카오, 같은 기간 약 13% 하락
오는 10일 첫 파업... 갈등 장기화 우려

엔비디아와 AI 협력 기대감이 커진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창사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하며 주가 흐름이 극명하게 갈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20% 상승했다. 지난달 20만원 후반대였던 주가는 5일 종가 기준 25만5500원까지 올랐다. 반면 카카오는 같은 기간 약 13% 하락하며 4만원 초반대로 밀려났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주가 흐름이 최근 경영 이슈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한다. 네이버는 AI 사업 확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반면 카카오는 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해진·젠슨 황 회동 효과...AI 기대감 커진 네이버

네이버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배경으로 AI 사업 경쟁력 강화 기대감이 꼽힌다. 네이버는 검색과 쇼핑, 광고 등 핵심 사업에 AI를 접목하며 수익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회동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분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8일에는 젠슨 황 CEO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 협력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추진 중인 글로벌 AI 팩토리 사업 역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속

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AI를 단순 서비스가 아닌 검색과 광고, 커머스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창사 첫 파업 앞둔 카카오...“골든타임 놓칠 수도”

반면 카카오는 노사 갈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 본사 기준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일부 계열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파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는 성과 보상 체계와 고용 안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사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단기간

내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개발과 조직 개편,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톡 중심 AI 전략과 자체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에 조직 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최근 네이버는 AI 협력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반면 카카오는 파업 이슈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향후 주가 흐름은 AI 사업 성과와 노사 갈등 해소 여부가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대학생 시험기간 맞춤형 혜택 선배

‘0 week’ 아메리카노 할인 등 제공

SK텔레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SK텔레콤은 T 멤버십을 통해 시험기간 맞춤형 혜택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대학생 고객들의 의견을 서비스·마케팅에 반영했다. 제안 내용은 ▲학사 일정에 따른 운영 ▲시험기간 중 커피·디저트 혜택 강화 ▲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매달 운영하는 혜택 프로그램 ‘0week(제로 위크)’의 주제를 대학생 시험기간으로 정했다. 운영 기간을 매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한시 적용했다.

혜택은 매가MGC커피 아이스 아메리



SKT 모델이 ‘0 week’와 ‘T 멤버십 커피드림 카’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카노 50% 할인 등이다. 이밖에 비나프레소, 투썸플레이스, 베스킨라빈스 등 커피·디저트를 이용할 수 있다.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또 ‘T 멤버십 커피드림 카’를 통해 현장에서 T 멤버십 인증 시 커피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KT, ‘제로 트러스트’ 보안전략 고도화

행위 기반 탐지 시스템 등 도입

KT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고도화한다. KT는 전사 시스템에 보안 위협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체계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보안 인식 체계다. 회사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ZTNA) 솔루션을 통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검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협 사전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침해로 인한 피해 전이 및 확산 예방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를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위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

한다. 먼저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대응 시스템(EDR)으로 PC와 서버 등 개별 기기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위를 분석한다. 네트워크 위협 탐지·대응(NDR) 시스템으로는 네트워크 전반의 비정상 트래픽과 공격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아키텍처도 고도화한다. 이는 공격자의 내부 침투 이후 보안 위협의 확산 경로를 통제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피해를 막는 기술이다.

올해 운영 안정성과 정책 검증을 거쳐 전체 업무 환경에서 시스템별 접근 및 통신 허용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눠 적용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KT 붉은악마와 광화문서 월드컵 거리응원 진행

KT가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6 월드컵’ 거리 응원 행사와 고객 프로모션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T의 전 국민 월드컵 응원 캠페인인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거리응원 행사는 한국 대표팀의 예선전 일정에 맞춰 6월 12일, 19일, 25일 총 3회 진행된다. KT는 국내 공식 월드컵 중계사인 JTBC와 협력해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 2기를 통해 경기를 생중계한다.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접속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와 영상이 미디어월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이 메시지는 멕시코 현지에서 결전을 준비 중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 당일에는 월드컵 응원가 사전 공연과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KT는 다음달 19일까지 힘찬 응원, 쾌찬 혜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기간 내 전국 KT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이미지가 담긴 월드컵 응원 굿즈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매장 내 QR코드로 응원 메시지를 남긴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 S26 등 최신 스마트폰을 준다.

서울 흥대·강남·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주요 5개 도시의 KT 플래그십 매장에서는 국가대표 응원 포토존이 마련된다. 이곳에서 인증샷 이벤트와 미니 축구 게임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스